

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

조사 개요

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, 만15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
2019년 5월 9일부터 14일까지(6일간)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 $\pm 4.4\%p$



혐오표현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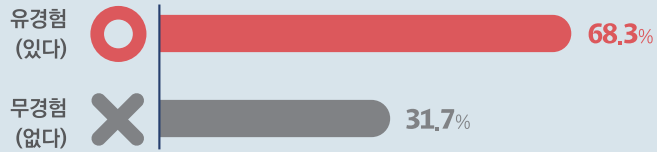
혐오표현을 접한 청소년은 10명 중 7명인 68.3%로 나타났습니다.

혐오표현 경험 청소년의 82.9%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하였고,
이 중 페이스북 등 SNS (80.0%)에서 가장 많이 접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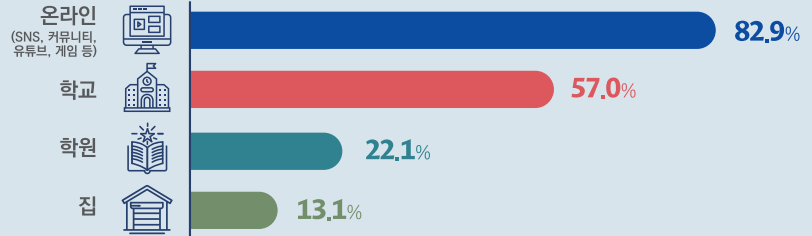
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(57.0%), 친구로부터(54.8%) 혐오표현을 경험하였고,
혐오표현 사용자가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17.1%였습니다.

전반적 혐오표현 경험 유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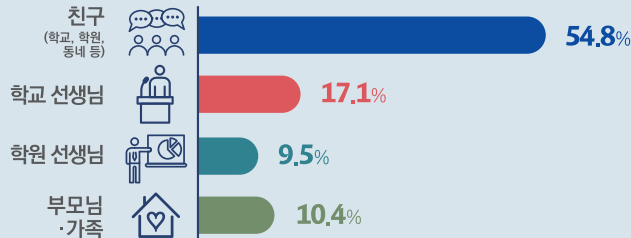
(n=500, 단위: %)



장소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



주체별 혐오표현 경험 빈도



혐오표현의 영향과 대응방식

혐오표현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4명 정도가 위축감(40.0%)이나 두려움과 공포심(37.7%)을 느꼈고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되었다(38.9%)고 응답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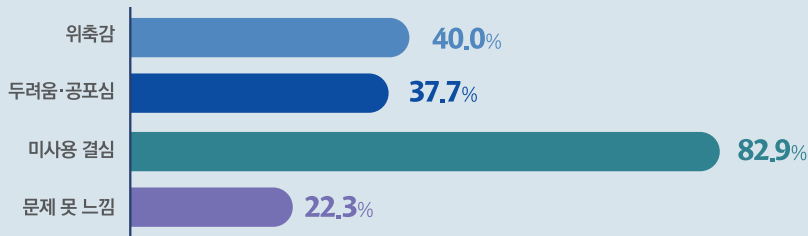
하지만 직접적인 반대의사 표현(43.7%) 보다는, 그냥 무시하거나(70.5%),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나 장소를 회피하는(64.5%) 등 소극적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한편, 청소년 10명 중 8명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(82.9%) 반면,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22.3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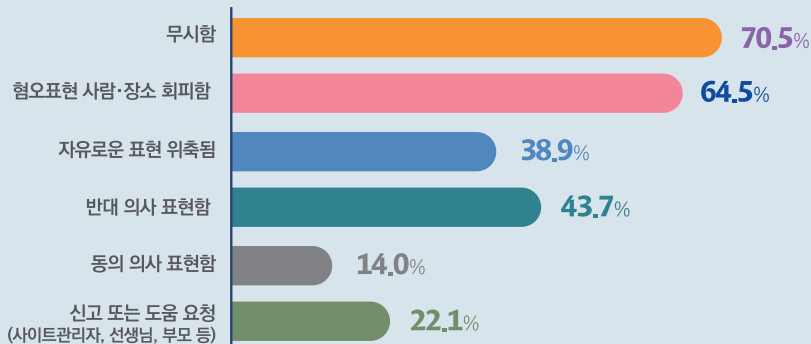
● 혐오표현 영향

(n=366, 단위: %)

심리
·
인식



행동
·
양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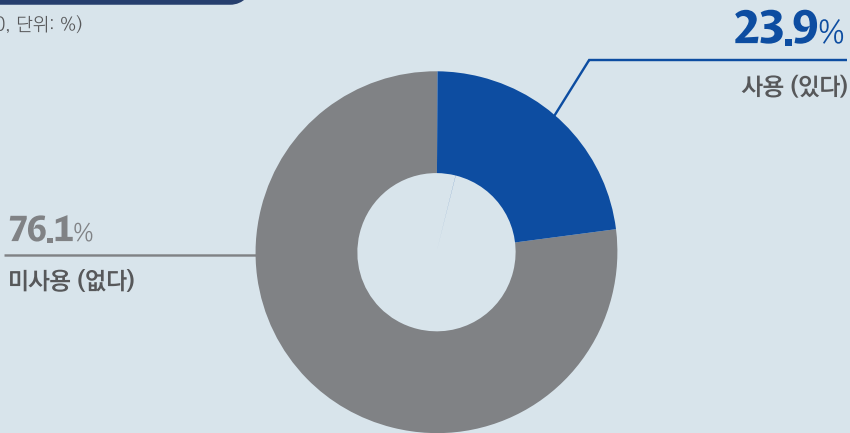


혐오표현 사용경험

청소년의 4명 중 1명 정도인 23.9%가 혐오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
혐오표현 사용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재미나 농담으로(53.9%), 남들도 사용하니까(57.5%) 혐오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.

● 전반적 혐오표현 사용 여부

(n=500, 단위: %)



● 혐오표현 사용 이유

(n=120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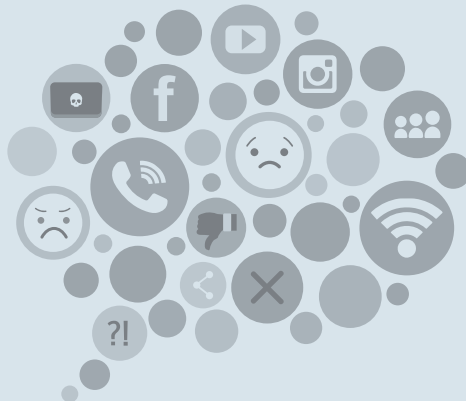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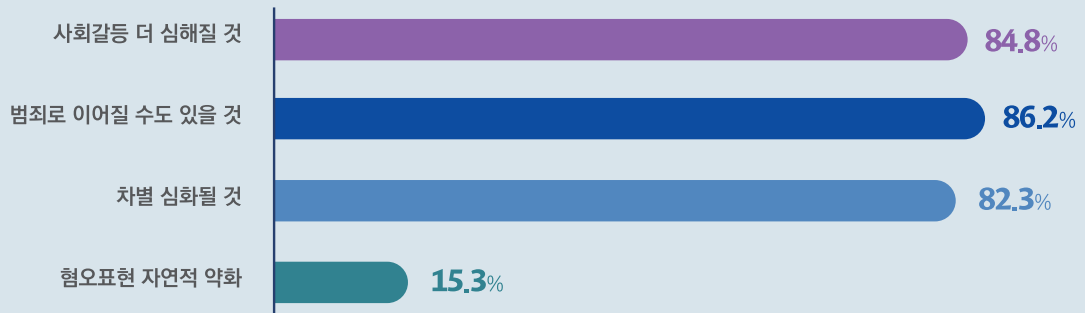


혐오표현 전망

청소년들은 향후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(86.2%),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(84.8%), 차별이 심화될 것(82.3%)이라고 전망했습니다.
반면, 자연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.3%에 머물렀습니다.

● 혐오차별 관련 전망 동의 정도

(n=500, 단위: %)



혐오표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

청소년 응답자의 대다수가 혐오표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높은 찬성 의견을 나타냈습니다. 국민인식 개선 교육·캠페인 강화(88.0%)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인권·다양성 존중 학교교육 확대도 86.4%로 나타났습니다.

• 혐오차별 대응정책에 대한 태도

(n=500, 단위: %)

